

賈寶玉의 “性夢”에 대한 프로이트적 접근

許根培* · 李蘭英**

◁ 목 차 ▷

- I. 서론
 - II. “性夢”과 무의식
 - 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꿈의 해석
 - 2. 유가사상의 色本性和 중국 고전 문학의 性 및 性夢 묘사
 - III. 《紅樓夢》에 체현된 賈寶玉의 “性夢”
 - 1. 무의식으로부터 이드의 탈출
 - 2. 초자아의 제약과 자아의 조정에 의한 이드의 “昇華”
 - 3.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여성에 대한 존중
 - IV. 결론
-

I. 서론

문학 작품은 인간과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펼쳐준다. 그러나 독자들은 주인공들의 희로애락의 스토리뿐 아니라 그런 표상 뒤에 숨겨져 있는 등장인물의 무의식을 파헤침으로써 작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를 탐색한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다. 독자와 등장인물에게는 무의식이지만 작가에게는 창작 의식이다. 따라서 이런 무의식에 대한 정확한 인지는 그 인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작품, 더 나아가 작가의 깊은 창작 의식 파악에도 큰 도움을 준다.

《紅樓夢》은 제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꿈에서 시작되어 꿈으로 끝나는 몽환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작품의 배경은 중국 봉건사회의 몰락기이며, 권문세가에

* 公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 公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博士課程

몸담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좌절과 정신적인 해체 과정을 크고 작은 30여 개의 꿈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중국 '夢幻文學'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작품이다.¹⁾

중국문학에서 “夢境”에 대한 묘사는 예로부터 있어 왔다. 춘추 시기 《論語·述而》에 보면 孔子가 꿈 속에서 周公과의 만남을 가졌고, 莊子가 《莊子·齊物論》에서 보여준 “莊周夢蝶”의 이야기 등이 그 예가 된다. 뿐만 아니라 元明 시기 “夢”자류 희곡 작품인 馬致遠의 《黃粱夢》이나 湯顯祖의 《臨川四夢》과 같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이렇게 작품 속에서 “夢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단지 소설적 표현 방식이나 독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작가가 현실적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작품 속 인물들의 깊이 숨겨져 있는 의식 세계, 즉 “무의식”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정신분석’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핵심으로서 억압된 원시적 충동, 욕구, 기억, 원망 등의 저장 장소로서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에너지 원천을 프로이트는 리비도라고 했다. 이러한 무의식은 인간 정신 활동의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失言, 失手, 夢, 幻 등의 表象으로 나타난다.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는 작품에 나타난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작가의 창작 심리와 동기, 작품 속에 나타난 인물의 감추어진 심리 상태, 숨어 있는 의미 그리고 深層의 상징성을 발굴하여 작품의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본고는 《紅樓夢》의 주인공 賈寶玉이 꾸는 “性夢”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통해 그의 性的 심리세계를 살펴보려 한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性”은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좁은 의미로의 “性”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가 엄마와의 살가운 접촉에서부터, 여인네와의 육체적 사랑, 정신적인 교감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한다고 본다. 즉, 賈寶玉의 ‘性夢’은 단지 운우지정이 아닌 남녀 간의 사모, 사랑, 구애 등을 내포한 꿈을 말한다. 《紅樓夢》 속에는 30여 개의 꿈이 나온다. 몽환구도의 중심축으로서 夢境은 인물의 미래에 대한 예시와 암시를 하는 꿈이다. 이러한 꿈은 꿈을 꾸 사람의 의지나 심리와는 상관없이 심미적으로나 구도의 필요에 따른 작가의 외현적 의도이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꾸는 ‘性夢’은 깊이

1) 高啟喜 《〈紅樓夢〉에서의 ‘紅樓’와 ‘夢’의 의미》, 《中國語文論叢》第19輯, 중국어문연구회, 2000, 365쪽.

숨겨져 있는 인물의 심리세계 즉, 무의식을 가장 잘 표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에 근거하여, 꿈에 대한 해석과 무의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고전 문학에서 성적인 묘사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紅樓夢》에 등장하는 주인공 賈寶玉의 ‘性夢’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賈寶玉의 인물 형상에 대해 보다 깊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II. “性夢”과 무의식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였던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치유를 목적으로 연구하던 중 무의식을 발견하였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구조와 인간의 본능 및 그 모순의 돌파구 즉 꿈에 대하여 가설을 제시하고 연구하였으며, 아울러 정신분석법과 문학의 관계에 관심을 보이면서 “무의식”과 관련하여 《오이디푸스왕》이나 《햄릿》과 같은 문학 작품의 인물 형상을 분석하였고, 그 정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사례로 실증적 고백에 의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꿈과 “무의식”의 관계 즉, 인간의 본능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²⁾ 프로이트의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의문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석과 비판의 이러한 다양성은 곧 그의 이론이 현대의 고전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과 무의식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구조에 대하여 意識, 前意識, 無意識 등 3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는 《자아와 이드》에서 심리의 구조적인 면을 제시하면서 이드(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라는 3가지 심리영역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현상 그 자체가 무의식이며, 의식 현상은 정신생활 전체 중에서 활동 부분에 불과하다.」³⁾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다수의 경우 우

2) 김주연 <프로이트의 문학 비평>, 《독일문학》 제92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4, 189쪽 참조.

3) 프로이트 지음, 오태환 옮김, 《정신분석 입문》(서울, 도서출판 선영사, 2009), 21쪽.

리가 의식이라 부르는 것들은 장기간 의식 속에 잠재해 온 무의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무의식은 독자적인 원망 충동, 독자적인 표현 양식, 평소에는 발동하지 않는 개성적인 심적 메커니즘을 가진 특수한 심적 영역」⁴⁾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잠재의식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욕망을 포함한 각종 생각과 인간 본능 및 그와 연관 있는 억압된 욕망을 담고 있는 우물인 것이다. 무의식은 막대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기회를 노려 의식 속에 침투하여 소원성취를 하려 한다.

프로이트가 주장하고 있는 무의식 속 본능적 욕구, 특히 유아기 욕구(리비도의 충동)는 자아와 초자아의 검열을 받아 평소에는 억압되어 의식의 영역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가 僞裝을 거쳐 농담, 失言, 실수 등 돌발적인 형태나 인간이 잠자는 동안 자아와 초자아의 검열이 약화되는 틈을 타서 욕망들의 암호화 형태인 꿈의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꿈은 어떤(억압되고 배척된) 소망의(위장된) 충족이다.」⁵⁾라고까지 말한다. 즉 소망의 충족이 꿈의 내용이고 그 동기는 바로 소원인 것이다. 그러므로 꿈은 의미가 있고 또 해석 가능한 것이라 인정하고 있다. 꿈은 깨어났을 때 기억하는 顯夢과 顯現하지 않는 “잠재 내용(꿈 사고)”이 있다. “꿈 사고”는 숨겨진 몇 개의 욕구를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키는 압축 또는 욕구를 상징적 재현물로 대치(치환)되어 표현수단, 가공(검열) 등의 작업(dream work)을 거쳐 현현된다.

2. 유가사상의 色本性和 중국 고전 문학의 性 및 性夢 묘사

중국 전통사상을 지배했던 유가사상은 性을 인간의 본성이자 원초적 욕망으로 보았다. 《孟子·告子(上)》에 보면 “식과 색은 본성이다(食色, 性也).”라고 하였고, 《禮記·禮運》에서는 “음식과 남녀에는 인간의 큰 욕망이 있다(飲食男女, 人之大慾存焉).”라고 하였다. 여기서 “色”은 현대인들이 말하는 “性”에 해당하고, “性”은 현대적인 해석으로 사물의 본질을 뜻한다. 예를 들면 孟子가 말한 ‘性本善’이나 荀자가

4) 프로이트 지음, 오태환 옮김, 《정신분석 입문》, 243쪽.

5) 프로이트 지음, 서석연 옮김, 《프로이트 꿈의해석(상)》(서울, 범우사, 1999), 218쪽 참조.

말한 ‘性本惡’과 같이 인간의 본능 또는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전통사회에서 “色”은 “性” 즉 인간의 본능을 말할 뿐만 아니라 “德”과 같이 높은 도덕적 표준에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일례로 孔子는 《論語》에서 “나는 德을 좋아하는 것을 色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라고 하였는데, 호덕이 호색만큼 본성에서 우러나오지 못함을 한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 유가사상에서 보여주는 色으로서의 性을 긍정적으로 볼 때, 중국 고전 문학에서는 일찍부터 성에 대한 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량도 아주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전 문학 가운데 지금까지 전해오면서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 가운데는 “性”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⁶⁾ 《詩經》의 〈關雎〉에 보면 “요조숙녀는 대장부의 좋은 배필이요. ... 요조숙녀는 대장부가 자나 깨나 그린다(窈窕淑女, 君子好逑. ... 窈窕淑女, 寤寐求之.)”라는 구절은 情慾을 미적인 추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漢나라 때 《飛燕外傳》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漢成帝와 飛燕, 合德 두 자매와의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그 뒤로는 점차 성적 묘사가 줄어들다가 明나라 시기에 이르러 다시 성행하였다. 明나라 중기부터 淸나라 중기에 이르기까지 《如意君傳》, 《三言》, 《二拍》, 《金瓶梅》와 같은 소설 작품들은 성적 묘사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꿈 속에서 남녀의 “性”을 묘사한 明나라 湯顯祖의 희곡 《牡丹亭》을 보면 杜麗娘은 어느 봄날 화원에서 깜빡 잠들었는데 꿈 속에서 한 선비를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된다. 잠에서 깬 후 그녀는 지나친 감상에 빠져 몽유병에 걸려 죽게 되며, 그녀가 꿈에 본 서생 柳夢梅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 병으로 쓰러졌다가 꿈에 杜麗娘의 원혼이 나타나서 서생을 인도하여 杜麗娘이 묻힌 무덤에 이르게 된다. 서생이 무덤을 파자 그 안에 묻혀 있던 杜麗娘이 다시 소생하여 두 사람이 다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와 비슷한 스토리는 사실 明나라 이전부터 그 모티프가 있었다. 唐나라 말기 작가 張鷟의 작품 《遊仙窟》은

6) 楊經建, 〈明清性愛小說: 中國性愛文學成熟的標志〉: 「事實上, 在中國歷代文學作品中, 得以流傳下來并且對後代文學產生很大影響的其中很多都是性愛作品。」(《中國文學研究》2008年 第一期, 91쪽)

십낭자와 십이낭자가 서생을 인도하여 유선굴에서 사랑을 나누는 스토리다. 비슷한 시기에 新羅 유학자였던 최치원의 《雙女墳記》도 역시 과거 보러 가는 선비와 외롭게 죽은 두 여자와의 하룻밤의 사랑 스토리다. 이 모두가 꿈에 이성을 만나 사랑을 맺는 스토리를 다루면서 그 과정에서 사랑과 성에 대한 표현을 주로 다루고 있다.

Ⅲ. 《紅樓夢》에 체현된 賈寶玉의 “性夢”

심리학자들은 인간 심리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문학가들은 예술적인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잠재된 의식”에 대해 새롭게 조합하는 방법으로 인간 심리를 표현한다. 비록 방법은 서로 다르나 목적은 동일하므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파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

잠재된 인간 심리가 문학가들에 의해 예술적인 가공을 거쳐 새롭게 조합되어 표현된다면, 꿈을 통한 표현 방법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꿈 속에서 인간은 자아와 초자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잠재되어 있던 욕구, 불안 등을 체현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주인공의 꿈을 빌어 자신이 보여주려고 했던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잠재된 의식을 체현하고 있고 《紅樓夢》 등장인물들의 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紅樓夢》에 등장하는 인물은 400여 명에 달한다.⁸⁾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賈寶玉이다. 그는 출신부터 신화적 색채가 짙다. 작가에 의하면 전설 속의 조물주 女媧가 돌을 깎아 하늘을 떠받치려고 돌을 만들었는데, 모두 36,501개의 돌을 사용하여 하늘을 떠받쳤다. 그 가운데 남은 하나의 돌 즉 청경봉 아래에 버려진 돌이 환생한 것이 바로 賈寶玉이라고 하였다. 女媧 神의 손길을 거쳤던 이 돌은 “通靈寶玉”으로써 인간 세상에 내려온 뒤 인간의 온갖 희로애락을 다 겪는다.

이렇게 출신부터 신비로운 賈寶玉은 꿈도 역시 신비롭다. 《紅樓夢》⁹⁾ 제5회에서

7) 朱邦國, 〈紅樓夢人物心理探微〉: 「心理學家探索心靈的奧秘是以理論的形式表述的, 文學家則只能借助藝術手段對“原生態”進行有選擇的排列與組合, 方法雖異, 目的卻只有一個: 向人的最深的最奧秘處掘進.」(《紅樓夢學刊》, 一九九四年 第二輯, 111쪽)

8) 劉夢溪, 《紅學》(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0), 4쪽.

9) 曹雪芹 著·施詒 校註, 《紅樓夢》(臺北, 黎明文化事業有限公司, 中華民國七十三年十一月初版)

寶玉은 榮國府의 賈母, 邢夫人, 王夫人을 따라 寧國府로 꽃구경을 떠난다. 이 과정에서 寶玉은 피곤하여 秦可卿의 방에서 낮잠을 자게 되고, 꿈속에서 寶玉은 秦氏에게 이끌려 “太虛幻境”에 들어간다. “太虛幻境”에서의 꿈 이야기는 제5회 한 회 전반에 걸쳐서 묘사되고 있는데 “金陵十二釵冊子(正冊, 副冊, 又副冊)”와 “紅樓夢十二支曲”을 통한 寶玉과 黛玉의 애정 비극과 열두 주인공 여인들의 비극적 운명 그리고 寶玉의 “意淫”에 대한 警幻仙姑의 해석 및 寶玉과 秦可卿의 운우지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스토리에 대한 암시와 전개를 위한 설정이라면, 뒷부분은 寶玉의 잠재된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프로이트의 잠재의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의식으로부터 이드의 탈출¹⁰⁾

제5회에서 寶玉과 秦可卿의 “兒女之事” 대목에서 작가는 寶玉이 꿈같이 몽롱한 상태에서 警幻仙姑가 가르쳐 준 대로 秦可卿과 한자리에서 자게 된다. 그리고 제6회에서 寶玉은 꿈에서 깨어나 낮이 나간 채 앉아 있다. 이런 寶玉에게 허리띠를 매 준다는 것이 그만 잘못하여 寶玉의 허벅다리에 손이 닿게 된 襲人이 무언가 끈적 끈적한 것이 손에 묻자 “에그머니! 어찌 된 거예요?”라고 호들갑을 떠난다. 그러자 寶玉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대답 대신 襲人의 손을 꼬집는데¹¹⁾ 寶玉은 꿈속에서 夢精을 하게 된 것이다. 이건 단순한 열두세 살¹²⁾되는 남자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기보다는 억압된 본능적 욕구의 만족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寶玉의 인물 형상 분석에서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 날 때부터 성적인 욕구를 포함한 “원초적인 욕망(原慾)”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욕망은 자아와 초자아의 제약을 받아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한다.

10) 이드는 原我로서 생존적 욕구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육체적 욕망과 본능적 충동을 가리키며, 모든 심리활동의 에너지 원천인 리비도(libido)의 저장소를 지칭한다. 즉 이드는 오직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를 따르는 바, 무법적이고, 도덕이나 선악 또는 논리적 사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악마와 같은 것이다.

11) 《紅樓夢》第6回: 「襲人伸手給他繫褲帶時, 剛伸手至大腿處, 只覺冰冷一片粘濕, 嚇得忙退回來, 問: 「是怎麼了?」寶玉紅了臉, 把他的手一捻。」, 59쪽.

12) 寶玉의 연령에 대해 紅學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에서는 12~13살로 보았다.

《紅樓夢》에서 賈府는 황제의 은총을 받아 호의호식하는 집안으로서 세습적인 작위를 가지고 있고 집안의 가훈이 엄격하다. 어려서부터 사서오경을 읽고 科擧에 급제하여 가족의 명예를 빛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주변의 관리들과 유명한 사람들을 자주 접촉하게 된 寶玉에게 있어서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압력이 아닐 수 없었다. 즉 인간의 원초적인 잠재의식은 자아¹³⁾와 초자아에 억눌려 전혀 분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성장해가던 寶玉에게 있어 견디기 어려운 이러한 압박감은 꿈을 통해 표출되어 정화된다.

꿈 속에서 太虛幻境에 이르자 寶玉은 “정말 좋은 곳이로구나!”라는 감탄과 더불어 부모나 선생의 꾸중을 피하고, 심리적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을 동경하게 된다. 즉 자아가 잠들어 있는 동안 도덕적 자아에 의해 지배된 초자아의 검열이 약화되면서 잠재의식 즉 이드를 합리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寶玉의 욕구를 자극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秦可卿과 그녀의 처소였다. 秦可卿은 寶玉의 조카며느리지만 연령은 寶玉보다 7~8살 더 많다. 더욱이 요염함은 薛寶釵 같고 날씬한 풍모는 林黛玉 같은 秦可卿은 매사에 빈틈이 없고 착실하여 賈寶玉의 마음속에서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하였다. 때문에 꿈속에서 秦可卿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寶玉은 깜짝 놀라 일어나는 순간 가슴을 칼로 푹 찔리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으악!’하는 소리와 함께 피를 토했다.¹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행위는 의식 속의 性的인 對象과 무의식 속의 性的인 本能이 이끌어낸 행동의 性的인 目標가 서로 다르기 때문¹⁵⁾에 꿈속에서 압축과 전환의 과정을 거쳐

13) 자아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사고, 감각, 판단 또는 기억 등 의식이 가능한 마음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신체의 감각에서 비롯되는 신체 감각의 심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理性을 지향하며 현실원리(reality principle)에 따라 움직이는 자아는 이드의 본능적 충동이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현실적으로 개체의 긴장을 풀어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자아는 이드의 욕망을 행동으로 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드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쾌락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즉 내적인 세계와 외적인 세계 사이에서 조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자아라고 하며, 騎士와 말의 관계로 비유하면 이드는 말과 같아 에너지를 제공하고 자아는 기사와 같아 말의 에너지를 기사의 의지에 따라 이끌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14) 《紅樓夢》第13回:「如今從夢中聽見說秦氏死了, 連忙翻身爬起來, 只覺心中似戳了一刀的, 不覺的哇的一聲, 噴出一口血來。」, 128쪽.

薛寶釵와 林黛玉이 秦可卿에 의해 하나로 결합되어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자 아이가 처음으로 몽정하는 성적 대상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이며 그다지 익숙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특히 평소에 자기가 사랑하던 이성인 경우는 더욱 드물게 나타난다. 때문에 賈寶玉의 첫 몽정에서 평소에는 자기 생활 범위에 속하지 않았으며, 성숙되고 아름다웠던 秦可卿이 성적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는 잠들기 바로 전에 秦可卿과 함께 있었던 경험도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秦可卿의 방 또한 寶玉에게 성적인 환경적 요소를 제공한다. 방문 앞에 이르자 그윽한 향내가 코를 찔렀다. 寶玉은 금방 눈이 감기고 뼈가 녹는듯하여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아아, 정말 향기롭구나!’ 방안에 들어서니 정면 벽에는 唐伯虎가 그린 《海棠春睡圖》가 걸려 있고 양 옆에는 송나라 때의 학자 秦太虛가 쓴 대련이 걸려 있었다. 싸늘한 기운은 봄추위처럼 느껴지고 그윽한 향기가 코를 찌른다. 상 위에는 옛날 武則天이 화장실에 두고 썼다는 거울이 있고 옆에는 趙飛燕이 그 위에서 춤을 추었다는 금쟁반이 있는데, 그 쟁반에는 安祿山이 楊貴妃에게 던져 유방에 상처를 냈다는 모과가 담겨 있었다. 뒷자리엔 壽昌公主가 매화꽃이 만발한 含章殿 처마 밑에 놓고 누워 있었다는 침상이 놓여 있고, 문에는 同昌公主가 진주를 깨어 만들었다는 발이 드리워져 있었다. 게다가 秦可卿은 손수 西施가 손 질렀다는 비단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紅娘이 안고 왔다는 원앙침을 내다 주었다.

이는 성적인 암시가 짙은 환경 묘사이다. 武則天의 거울은 “무축천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즐겼다.”는 고시를 연상하게 하고, 趙飛燕이 춤을 췄다는 쟁반은 《漢成帝內傳》에서 “한성제가 조비연을 얻었는데 너무도 가벼워서 바람에도 날려갈 정도”라는 전고를 회억시켰으며, 모과는 안록산과 양귀비의 “은밀한 정을 통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불은 서시요, 베개는 홍랑이니 모든 환경은 성적으로 이미 성숙된 남자 아이의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들이닥칠 꿈은 이미 아직 성적 경험을 해 보지 못한 寶玉에게는 자못 신선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警幻仙姑가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은 그대가 바로 천하고금을 통해 가장 음

15) 弗洛伊德 著, 趙蕾·宋景堂 譯, 《性欲三論》: 「把散發出性的誘惑力的人稱爲性對象, 把性本能取向的行動成爲性目標。」(北京, 國際文化出版社, 2000), 12쪽.

란한 사람이기 때문이죠.”¹⁶⁾라고 말하자, 寶玉은 깜짝 놀란다. “선녀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글 읽기를 싫어해서 때때로 부모님의 꾸중을 듣는 것만도 거북한데 어디라고 감히 음탕한 버릇까지 키웠겠습니까? 하물며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거니와 음이라는 게 무엇지도 모른답니다.”¹⁷⁾ 성리학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에 寶玉에게는 “천하에서 제일 음란한 사람”이라는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초자아의 도덕적 원칙에 의해 「공맹의 도에 유념하고, 나랏일에 힘써야」¹⁸⁾ 하는 도덕적 압박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억압될 대로 억압된 이드는 초자아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 때문에 이드는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탈출이 가능하므로 《紅樓夢》에는 寶玉의性に 대한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紅樓夢》제6회에서 寶玉은 襲人에게 꿈속에서 겪었던 일을 들려준다. 이야기가 警幻仙姑가 가르쳐 주던 대로 운우의 정을 통하던 대목에 이르자 襲人は 부끄러워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키득키득 웃기만 했다. 寶玉은 진작부터 습인이 남달리 살뜰하고 아름다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으므로 은근히 호감을 갖고 있던 터라 부끄러워하는 습인을 억지로 달래 警幻仙姑가 가르쳐 주던 그대로 운우의 정을 실제로 체험해 보는데 이는 어찌면 꿈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 대목에는 자세한 성적인 묘사는 없지만 제6회의 제목을 “賈寶玉이 처음으로 운우지정을 시도하다.”¹⁹⁾라고 한 것부터 그 의미가 색다르다.

《紅樓夢》 제31회에서 寶玉이 술을 마신 후 晴雯에게 목욕 시중을 들어 달라고 하며 같이 씻자고 말하자 晴雯은 거절한다. 그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언젠가 碧痕이가 도련님 목욕 시중을 들었을 때 아마 적어도 두세 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 무얼 어떻게 했는지 목욕이 끝난 뒤에 들어가 보니 바닥에 고인 물에 침상 다리가 잠길 지경이고 침상 위에 퍼놓은 샷자리까지 폭 젖어 있더군요. 우리는 며칠을 두고 웃었는지 몰라요.»²⁰⁾라고 말한다. 작가는 晴雯의 말을 빌

16) 《紅樓夢》第5回: 「吾所愛汝者, 乃天下古今第一淫人也.」, 56쪽.

17) 《紅樓夢》第5回: 「仙姑差了, 我因懶于讀書, 家父母尚每垂訓飭, 豈敢再冒淫字. 況且年紀尚幼, 不知淫爲何物.」, 56쪽.

18) 《紅樓夢》第5回: 「留意於孔·孟之間, 委身於于濟之道.」, 56쪽.

19) 《紅樓夢》第6回: 「賈寶玉初試雲雨情」, 59쪽.

20) 《紅樓夢》第31回: 「我不敢惹爺: 還記得碧痕打發你洗澡啊, 足有兩三個時辰, 也不知

러 寶玉과 碧痕이 사이에 있었을 행위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중국 전통문화에서 남녀의 同浴을 “鴛鴦浴”이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짝은 성적인 색채가 풍긴다. 唐나라 齊己의 詩〈還人卷〉²¹⁾과 元나라 趙孟頫의 詞〈巫山一段雲〉²²⁾에 보면 “鴛鴦浴”에 대한 묘사가 보인다. 碧痕은 “金陵十二釵又副冊” 第3冊에서 나오는 지위가 낮은 시녀라 평소에도 寶玉의 목욕 시중을 들었다. 이에 반해 晴雯은 비록 천한 출신이지만 「마음은 하늘같이 높아」 청백과 고결을 유지하여 「다정한 귀공자의 마음만 속절없게」²³⁾ 만들어 놓는다. 이런 晴雯이 寶玉과의 同浴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 同浴의 내적 의미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초자아의 제약과 자아의 조정에 의한 이드의 “昇華”

프로이트는 이드가 성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나 그것을 새로운 목표에 사용하는 과정을 “昇華”라고 하면서 이 과정은 개인의 발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했다.²⁴⁾ 警幻仙姑는 寶玉의 淫을 “意淫”이라 했다. 이 ‘意淫’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는 서로 다르다.²⁵⁾ 본고에서는 ‘意淫’에 대해 단순하고 천진한 감정도 아니고, 플라톤식 사

道做什麼呢。我也不好進去，後來洗完了，進去瞧瞧，地下的水淹着牀腿子，連蓆子上都汪着水，也不知是怎麼洗的？笑了幾天！」, 328쪽.

21) 齊己, 〈還人卷〉: 「李白李賀遺机杼, 散在人間不知處。聞君收在芙蓉江, 日斗鮫人織秋浦。金梭札札文離離。吳姬越女羞上机。鴛鴦浴煙鸞鳳飛, 澄江曉映餘霞輝。仙人手持玉刀尺, 寸寸酬君珠与璧。裁作霞裳何處披, 紫皇殿里深難覓。」

22) 趙孟頫, 〈巫山一段雲〉: 「碧水鴛鴦浴, 平沙豆蔻紅。雲霞峰翠一重重。帆卸落花風。淡薄雲籠月, 霏微雨洒篷。孤舟晚泊浪聲中。無處問音容。」

23) 《紅樓夢》第5回: 「心比天高 … 多情公子空牽念!」, 49쪽.

24) 西格蒙德·弗洛伊德著, 趙蕾·宋景堂譯, 《性欲三論》: 「使性的本能脫離性目標并把他們用於新的目標—這個過程應該被稱爲‘昇華’。」(北京, 國際文化出版社, 2000), 42쪽.

25) 최병규, 〈情欲合一과 『紅樓夢』 賈寶玉의 “意淫”〉: 「소위 “의음”은 『홍루몽』 속의 가보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도 홍학자들마다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점은 그것(“의음”)은 가보옥이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로 그가 모든 여성들에 대해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대우하며 그를 통해 정신적인 위안을 삼으며, 나아가 여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일생 중 가장 유쾌한 일이라고 자부하여 말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의음”을 여성과 거리를 두고 해석하여 그것을 인생과 우주에 대한 연애이자 完美한 아름다운 경지에 대한 추구라고 보기도 하였다.」(《중어중문학》 제39집, 한국중어중문학

량도 아닌 잠재의식 속에서 성적 흡인력을 느끼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과 이런 욕망이 초자아의 제한 속에서 이룩한 승화라고 정의하는 바, 이러한 ‘昇華’는 林黛玉를 향한 충정으로 변함없는 사랑이라 할 수 있다.

《紅樓夢》 제26회에는 寶玉이 “瀟湘館”의 黛玉에게 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윽한 향기가 紗窓 안으로부터 새어 나오고, 방안에서 林黛玉이 가늘게 《西廂記》에 나오는 대사의 한 구절 「날마다 그리움에 젖으니 눈마저 피곤해져 감기네」²⁶⁾ 라고 읊는 소리를 듣고 寶玉은 黛玉의 침상 옆으로 다가간다. 寶玉은 「별같이 반짝이는 눈을 몽롱하게 뜨고 두 볼은 능금같이 발그레 물들어 있는」 黛玉을 보고 「마치 혼이 나간 것처럼 정신이 아찔해진다」²⁷⁾ 잠에서 방금 깨어난 눈, 발그스름하게 물든 볼, 이런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은 모습의 여인을 보면서 원초적인 본능을 느끼는 것은 이드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賈寶玉의 욕망은 여기에서 멈추게 된다. 왜냐하면 꿈 속에서 잠재의식 속의 원초적 욕구는 초자아²⁸⁾의 간섭이 약화되면서 만족될 수 있었지만, 깨어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윤리 도덕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본능적 욕구는 영혼적인 사랑에 대한 추구로 승화된다. 즉 이성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黛玉은 寶玉의 유일한 ‘紅顏知己’이다. 寶玉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여성들이 싸돌고 있다. 그도 그녀들을 위해 지극한 정성을 보였고 우정을 나누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오해와 무관심뿐이었고 그것이 寶玉의 마음을 아프고 외롭게 했다. 黛玉도 예민한 성격

회, 2006, 439-440쪽) / “의음”이라는 용어는 “음”의 시각에서 본 경환선고의 가보옥에 대한 평어이지 가보옥에 대한 『홍루몽』 작자의 주된 관점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따라서 “의음”이라는 말은 가보옥의 “치정”에 대한 “음의 화신”적인 경환선고의 변형적이고 과장적인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 자체가 무슨 격조 높고 심오한 경지로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중어중문학》 제3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 450쪽)

26) 《紅樓夢》第26回: 「每日家, 情思睡昏昏!」, 273쪽.

27) 《紅樓夢》第26回: 「寶玉見她星眼微顰, 香腮帶赤, 不覺神魂早蕩, 一歪身坐在椅子上」, 273쪽.

28) 초자아는 인간의 정신 구조에서 이상적인 것을 대표하는 부분이다. 도덕적, 윤리적 검열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드를 통제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억압하는 기능을 한다. 이드가 악마 같은 존재이면 초자아는 천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정신구조는 모두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의식구조는 이드의 악마성과 초자아의 천사성 사이에서 두 가지 의식을 적절히 통합하고 균형을 잘 유지하는 자아의 역할에 의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과 예리한 말투로 못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寶玉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의 정신 세계를 공감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 당시 禁書에 속했고, 규방 아가씨와 귀공자들이 봐서는 안 되는 《西廂記》를 읽고 있는 寶玉을 보고 놀라지도 질책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寶玉의 손에서 책을 받아 읽고 또 그것을 다시 읊어 그 시대 “閨秀”의 표본인 薛寶釵의 질책을 받기도 한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寶玉에게 “仕途經濟”와 “孔孟之道”를 권하지만 林黛玉은 賈寶玉의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의 인생관에 동조한다.

첫 만남이지만 「꼭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웬일일까? 어쩌면 이렇게도 눈에 익담?」²⁹⁾ 이 말은 寶玉이 黛玉을 처음 만나서 한 이야기이다. 이는 賈母의 말처럼 “허튼 소리”가 아니라 寶玉의 무의식 속에서 그려왔던 이상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寶玉의 黛玉에 대한 사랑은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원초적 애욕이 아닌,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며 비인간적이고 봉건예교적인 전통에 대한 반항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남녀평등 의식과 개성에 대한 추구하고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드의 점차적인 승화 과정으로서 잠을 자도 꿈을 꾸도 한시도 黛玉을 잊을 수 없다³⁰⁾는 사랑의 표현으로, 黛玉을 유일한 삶의 반대로 인정함으로써 昇華가 이루어진다. 즉 「성욕은 사랑에 거대한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사랑의 잠재적 동력이 된다. 사랑은 다시 목적성을 가지고 성을 추구하게 되는 바, 이 과정에서 성욕은 소멸의 방식으로 다시 사랑과 욕망에 내포된다.」³¹⁾

3.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여성에 대한 존중

프로이트는 인간의 충동적인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는 유아기에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등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한다. 마지막 단계인 남근기는 3~6세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 시점에서 유아는 남성으로서의 의미와 여성으로서의 의미를 깨

29) 《紅樓夢》第3回: 「好生奇怪, …… 倒像在那裏見過的? …… 何等眼熟!」, 31쪽.

30) 《紅樓夢》第32回: 「等你的病好了, 只怕我的病纔得好呢!, 睡夢裏也忘不了你!」, 338쪽.

31) 基·瓦西裏夫, 《情愛論》: 「性欲賦予愛情以巨大的力量, 他是愛情欲望的潛意識動機, 愛情願望反過來則從規定的和達到目的的角度指導着性衝動, 性欲以‘被取消的方式’蘊含在愛情的願望之中」(上海, 三聯書店, 1984), 163쪽.

단계 되는데 이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한다. 그리스 신화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비롯된 이 개념은 남자 아이가 아버지를 적대시하고 어머니를 성적 상대로 삼으려는 숨겨진 욕망을 말한다. 이 시기에 남자 아이나 여자 아이는 모두 어머니를 소유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자로서의 이성인 아버지를 적으로 인식한다. 즉 아버지는 모든 권위의 근원이고 모든 욕망의 조정자로 인식된다.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은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되면 아버지에 대한 억압된 감정이 반사회적, 질서 파괴적 인간으로 표현되기 쉽다.

賈寶玉의 형상을 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중국의 전통적 유가사상인 “仁義”와 “孝” 문화의 지배를 받아왔던 당시 사회에서 寶玉에게 “殺父”의 정서까지는 있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늘 그에게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억압을 주는 상대였다. 《紅樓夢》 제5회에 나오는 警幻仙姑와의 대화에서 보면, 賈寶玉은 「글 읽기를 싫어해서 부모님의 꾸중을 듣는 것이 싫고, “孔孟之道”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글 읽기를 싫어한다고 꾸중하는 사람이 아버지이고, “孔孟之道”를 강요하는 사람 역시 아버지이다. 이는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꿈 속에서 자기와 꼭 닮았다고 하는 甄寶玉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賈寶玉은 「대감님께서 도련님을 부르십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들짝 놀란다.」³²⁾ 아버지 賈政은 때때로 寶玉을 불러 과거 공부를 점검하고, 힘 없이 손님들 앞에서 묻는 말에 대답 하나 제대로 못하고 얼굴에는 온통 사욕과 근심뿐이라고 꾸중하기도 한다.³³⁾ 그 손님 역시 賈寶玉이 거부하고 반항하는 공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고 보면 賈寶玉의 반발심은 극도에 달했을 것이다. 제33회에서 賈政은 賈寶玉이 집에서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고 밖에 나가 琪官과 무턱대고 그냥 놀러 다니고, 어머니의 몸종 金釧兒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寶玉에게 곤장을 친다.

의식과 무의식은 동일한 인간 의식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의식은 유아 시기의 억압된 성적 욕망, 분노로서 지속적으로 의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寶玉

32) 《紅樓夢》第56回: 「只見人來說: 「老翁叫寶玉」. 嚇得二人皆慌了.」, 603쪽.

33) 《紅樓夢》第33回: 「全無一點慷慨揮灑的談吐, 仍是委委瑣瑣的, 我看你臉上一團私慾愁悶氣色!」, 342쪽.

의 무의식 속에는 잠재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의식 속에 비춰진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仕途”에 서있는 남성들의 가식과 위선, 그의 주위에 있는 賈璉, 賈瑞 등과 같은 음란하고 방탕한 남성들의 자태가 더해졌다. 그래서 남자는 혼탁하고 여자는 맑고 그윽하며 여자는 존중하지만 남자는 억압하는 생각 즉, 「여자는 물로 된 몸이요. 남자는 흙으로 된 몸이어서 여자 곁에 가면 마음이 상쾌하지만 남자는 얼굴만 봐도 역겨움이 난다.」³⁴⁾는 관념 세계를 만들어냈다.

賈寶玉의 여성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癡情”³⁵⁾은 “男尊女卑”의 도덕 표준에서는 반사회적이고, 기존의 질서에 대한 파괴라고 할 수 있다. “여자는 물로 된 몸이다.”라는 것은 그의 자연적인 인성관과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은 가장 자연적인 것으로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전혀 오염되지 않은 물은 더욱 깨끗하고 투명하므로 여자의 마음 또한 맑고 깨끗한 물과 마찬가지로 세속의 오염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성격적으로도 자연을 더 선호하며 전혀 구속 받지 않는 자유자재의 기질이 담겨져 있다. 때문에 여자한테서는 인간성에 대한 것이 더 쉽게 더 많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는 입신양명을 추구하고 벼슬길을 추구하므로 이는 비자연적인 것이고 비인간적인 것이다.

賈寶玉의 이러한 “自然人”에 대한 추구는 그 어느 아름다운 여성일지라도 그것을 억압하고 말살하려 하면 그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한 행동은 그에게 “孔孟之道”를 권고하고 벼슬을 바라는 薛寶釵나 史湘雲에 대한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자신에게 벼슬길로 가기를 바라는 史湘雲을 보고 寶玉은 「아가씨! 미안하지만 다른 자매들 방으로 가 주세요. 아가씨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데 앉아 계시면 몸이 더러워져 되겠어요?」³⁶⁾라고 말한

34) 《紅樓夢》第2回: 「女兒是水做的骨肉, 男子是泥做的骨肉: 我見了女兒便清爽, 見了男子便覺濁臭逼人!」, 17쪽.

35) 최병규, 《《紅樓夢》 속의 “情”과 “淫”》: 「요컨대 “치정”이란 그 마음이 순수하고 그 정이 지극하여 비록 세속의 예법이나 기준으로 보면 황당하고 바보스러우며 미친듯하지만 사실 그 내면의 세계는 그 영혼의 순수함과 진실함, 그리고 선량함과 다정함으로 가득 차있는 인간미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뿐 아니라 그것은 공리성을 떠나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삶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인생태도의 반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치정”의 세계야말로 《홍루몽》에서 역설하는 정의 한 중요한 함의인 것이다.」(《中國語文論譯叢刊》第15輯, 중국어문논역학회, 2005, 137쪽)

36) 《紅樓夢》第32回: 「姑娘請別的屋裏坐坐罷, 我這裏仔細腌臢了你這樣知經濟的人!」,

다. 반면에 賈寶玉의 “女兒”에 대한 존중, 동정, 다정다감함은 상대의 신분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귀족 아가씨든 비천한 몸종이든 모든 “女兒”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결코 “淫”이 아닌 「남녀 간의 관계를 한 차원 승화시켜주는 격조 높고 고귀한 것」³⁷⁾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이상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통해 《紅樓夢》에 나타난 주인공 賈寶玉의 형상을 살펴보았다. 주로 “性夢”을 통하여 체현된 賈寶玉의 “이드”와 원초적 욕구 충족에서 출발하여 黛玉을 유일한 삶의 반려로 인정하는 “昇華” 및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여성에 대한 존중으로서의 “癡情”으로 나누어 賈寶玉의 형상을 분석하였는데, 〈西江月〉詞에 「寶玉은 방탕하여 세상 일은 아는 것이 없고, 어리석고 완고하여 과거 문장을 읽기 두려워하며, 행동은 괴이하고 성격이 모가 나지만 세인들의 비방에도 아랑곳없다.」³⁸⁾는 세인들의 인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본질적인 근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아와 초자아의 억압 속에서 잠재될 수밖에 없었던 賈寶玉의 무의식을 파헤쳐 보았다. 그 결과 당시의 현실 사회에서 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도 스스로 없었었던 賈寶玉의 형상을 한층 더 부각시킬 수 있었다.

물론 정신분석학적 방법으로 문학작품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프로이트는 무의식 속에 있는 이드가 인간의 모든 정신생활의 원천이고 에너지의 본능이며 또한 이러한 이드가 체현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入夢者의 무의식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중국 고전소설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夢”자류 소설 《紅樓夢》에 나타난 인물 형상들을, 이들이 꾸고 있는 “꿈”을 통해 보다 과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본고에서 분석한 내용에서 볼 때

336쪽.

37) 최병규, 〈중국문인들의 전통적 “愛紅”심리를 통해서 본 《紅樓夢》 賈寶玉의 심리세계〉, 《中語中文學》第37輯, 한국중어중문학회, 2005, 277쪽

38) 《紅樓夢》第3回: 「潦倒不通庶務, 愚頑怕讀文章, 行爲偏僻性乖張, 那管世人誹謗」, 31쪽.

이러한 시도는 《紅樓夢》에 등장하는 인물 형상들을 보다 깊이 있게 파헤치는 과정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인물들에 대한 꿈을 통한 정신 분석학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함을 제시해 준다.

【參考文獻】

- 曹雪芹 著·施詒 校註, 《紅樓夢》, 臺北, 黎明文化事業有限公司, 中華民國七十三年十一月初版.
- 基·瓦西里夫, 《情愛論》, 上海, 三聯書店, 1984.
- 西格蒙德·弗洛伊德著, 趙蕾·宋景堂譯, 《性欲三論》, 北京, 國際文化出版社, 2000.
- 王國維·林語堂 等著, 《紅樓夢藝術論》(甲編三種), 臺北, 里仁書局, 1985.
- 劉夢溪, 《紅學》,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0.
- S. 프로이트, 오태환 옮김, 《정신분석입문》, 서울, 선영사, 2009.
- S. 프로이트, 서석연 옮김, 《프로이트 꿈의 해석》(상, 하), 서울, 범우사, 1999.
- 高旼喜, 《〈紅樓夢〉에서의 ‘紅樓’와 ‘夢’의 의미》, 《中國語文論叢》第19輯, 중국어문학회, 2000.
- 김주연, 〈프로이트의 문학 비평〉, 《독일문학》 제92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4.
- 羅嘉慧, 〈賈寶玉性夢解析與秦可卿形象定位〉, 《明清小說研究》, 2008年 第四期.
- 楊經建, 〈明情性愛小說: 中國性愛文學成熟的標誌〉, 《中國文學研究》, 2008年 第一期.
- 曹金鐘, 〈賈寶玉新論〉, 《紅樓夢學刊》, 一九九六年 第四輯.
- 朱邦國, 〈《紅樓夢》人物心理探微〉, 《紅樓夢學刊》, 一九九四年 第二輯.
- 최병규, 〈중국문인들의 전통적 “愛紅” 심리를 통해서 본 《紅樓夢》 賈寶玉의 심리세계〉, 《中語中文學》第37輯, 한국중어중문학회, 2004.
- 최병규, 〈《紅樓夢》 속의 “情”과 “淫”〉, 《中國語文論譯叢刊》第15輯, 중국어문논역학회, 2005.
- 최병규, 〈情欲合一과 『紅樓夢』 賈寶玉의 “意淫”〉, 《중어중문학》 제3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

【中文提要】

《紅樓夢》如同其標題所示，在龐大的敘事體系裏，穿插了大大小小的三十多個夢境，可謂夢境描寫的集大成者。夢境的設置，不僅可以突破現實生活的限制，盡情抒發作者的自由情感，而且可以充分展現入夢者的深層心理世界。弗洛伊德把人的心理結構分為意識，前意識，潛意識三個層次。居於最深層的潛意識，是人的生物本能和欲望的儲藏庫。這種本能和欲望有着強烈的“衝動”，他的力量源于力比多，也就是人的“本我”。這種“本我”，由於受到代表理性和良知的“自我”和“超我”的壓抑、控制，平時無法顯現於意識領域，只是在口誤、筆誤、閃失及夢、幻、痴等狀態下才能進入意識系統。黨人處於睡眠狀態時，“自我”和“超我”的檢查作用鬆懈，“本我”便趁機溜出，達其目的。夢是潛意識欲望的主要釋放途徑。因此，通過解讀作品中體現的入夢者的心理層面的夢境，可以看出人物似通非通，似理非理的表象原因，即潛意識的操縱。潛意識中被壓抑的欲望，除上述兩種釋放途徑之外，還有更為重要的一種途徑，即昇華。賈寶玉是《紅樓夢》衆多人物中最飽滿、最具立體性格的人物形象之一，也是“無故尋愁覓恨，有時似傻如狂”最多難解之謎的人物。以弗洛伊德精神分析理論和夢的解釋理論，對其性夢進行剖析，則其心靈世界的潛意識便可窺見一斑。他的看似乖僻的人生觀，愛情觀，女兒觀，俄狄伏斯情結以及常人所難以理解和接受的言談舉止，也就順理成章，變得可理解了。

【主題語】

賈寶玉，弗洛伊德，夢境，潛意識，性夢，本我，自我，超我，俄狄伏斯情結，昇華

투고일: 2011. 1. 24 / 심사일: 2011. 2. 1~2. 12 / 게재확정일: 2011. 2. 15